"댄스 스포츠 국가대표의 꿈 꼭 이룰게요"
제주농협 행복나눔본부 희망드림 프로젝트

"더욱 열심히 연습해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알리는 댄스스포츠 국가대표가 꼭 되겠습니다.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귀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신유주 학생은 희망기금 증서를 받고 미리 준비해온 감사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지난달 2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주농협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농협농축산인 행복나운동본부(공동본부장 변대근·이창철)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희망드림(Deram) 프로젝트 2차 희망기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올해 두 번째(2020-2차) 희망드림(Deram) 프로젝트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통해 총 47건을 접수했으며, 농협과 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개인 14가구 4600만원, 기관 5곳 1600만원 등 총 19건을 선정해 6200만원을 전달했다.

스포츠 국가대표선수가 희망인 신유주 학생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학원을 매일 다니며 연습을 하면서 꿈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부모님 소득이 줄자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는 딱한 소식을 접한 애월읍사무소 신청에 의해 지원하게 됐다. 신유주 학생에게는 1년간 재능개발비로 450만원이 지원된다.

안철훈 대표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가입
누적 기부금 1억… 아동에 매월 230만 지원

제이풀어린이수영장 안철훈 대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제주14호 회원에 가입했다.

그린노블클럽은 1억원 이상을 후원한 고액기부자모임으로, 2017년에 제주 1호 회원이 탄생한 이후 3년만에 14번째 회원을 맞이하게 됐다.

안 대표는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며 "주변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 보니 그린노블클럽까지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조금씩 나눠서 짊어진다면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로 힘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은 안 대표는 매년 기부금액을 늘려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230만원을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1억원의 후원금은 도내 아동들의 장학금으로 쓰이거나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정홍보 우수부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3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우수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장려에 총무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부여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홍보 유도해 나가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촌과조카 정육식당 희망나눔 명패

삼촌과 조카 정육식당(대표 유승경)은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동참했다.

앞으로 '삼촌과 조카'는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 사업장으로 등록돼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된다.

영주이앤아이 윤희정 이사 성금 기탁

(주)영주이앤아이 윤희정 이사는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사)붇다클럽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기탁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위기가정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전달받은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윤 이사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라동장애인지원협 장애인가구에 물품

제주시 아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변정자)는 지난달 29일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관내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돼지고기와 빵 등 추석음식 재료를 몸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40가구에 전달했다.

변정자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생필품 전달과 건강 확인, 감염병 예방 생활수칙 실천 안내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맞아 외국인근로자에 양말 전달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강기종)은 지난 2일 추석을 맞아 성산읍숨비로타리클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양말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했으며, 지역주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성산읍희망동행사업'으로 지원됐다.

동정

민생의정 분야별 간담회 현안 청취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생의정 분야별 간담회(수산분야)'에 참석해 현안 의견을 청취.

제6회 성인지 발전포럼 토론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6회 성인지 발전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9월 새농민상에 임병언·김미숙 부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9월 수상자로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 소속 조합원인 임병언(51·왼쪽)·김미숙(49)부부가 선정돼 지난달 28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부부는 2000년대 초반 농업을 시작, 현재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성우네농원'을 운영하며 감귤류, 채소류, 양채류, 잡곡류 등 복합영농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영농기술 전파 등으로 제주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영농기술 개발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업적을 인정받아 2013년과 2019년 우수감귤경연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산단지 명품감귤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 육묘 위탁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제주 감귤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향후 이 부부는 새농민 회원으로서 선진영농기술 보급, 후계농업인 육성 등 선도농업인으로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순심씨 '문학청춘' 시 신인상 당선

제주 고순심(사진)씨가 계간 '문학청춘'의 제11회 시 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유행포차', '물 위를 걷다', '할머니의 방', '소리의 저편' 등 4편이다. 고순심씨는 당선 소감에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뚜벅뚜벅 힘주어 걸어가겠다"며 "상처가 많아서,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를 쓰고 싶다"고 했다. 방송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인 고씨는 2018년 탐라문화제 전국문학작품 공모 시부문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